

대만사찰 지진피해 극심

만불사·용산사등 폭격 맞은듯 파손 법륜종 1200만원 구호금 전달

타이완(臺灣) '9.21' 대지진으로 인해 사찰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고산스님)를 중심으로 한국불교계가 구호성금을 전달하기로 결의하는 등 자비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이미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호성스님(용암사주지)은 9월 30일 타이완을 방문해 만불사 주지 상개(常開)스님에게 구호성금 1천200만원을 전달했다.

북반구대륙인 자체공덕회는 최근 자국의 지진재해민을 돕기 위해 구호물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코소보 사태때와 터키 지진때 국제구호활동을 펼쳤던 자체공덕회는 대만의 기온이 밤에는 더욱 추워지고 태풍마저 불기 때문에 집을 잃은 지진피해자들이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5천개의 임시주택을 지어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선 국제사회에서 담요와 텐트 등 물품들을 보내주면 적극 전

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이완 대지진으로 가장 큰 재난을 당한 우렝시 만불사(주지 상개常開)를 비롯해서 창화사에 위치한 300년 역사의 용산사(龍山寺)와 남부 영엄선사(靈嚴禪寺)가 건물이 무너지거나 균열이 심하고 기둥이 땅바닥까지 주저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불사는 전경터의 폭격맞은 잔해처럼 완파됐으며, 절 앞에 위치한 만불사 재단 자명상공학교(재학생 3000명)도 건물이 주저앉았다. 이들 대지진 피해사찰들은 현재 절 옆에 텐트를 치고 불사를 모시고 기도정진하며 생활하고 있다.

위영란 기자 (ryui@buddhopia.com)

대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만사찰을 돕기 위해 한국불교계가 적극 나서고 있다. 법륜종 총무원장 호성스님(사진 오른쪽)은 9월 30일 대만 만불사의 피해현황을 둘러보고 구호성금 1천2백만원을 전달했다.



하고 있다. 무제는 이 비문을 달아 대사가 승진 직후인 12월 15일 썼고, 묘탑은 538년에 세워진 것으로 돼있다.

오종욱 기자

日 '종교·정치모임' 결성

○...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9월 8일 '종교와 정치를 생각하는 모임(회장 구마가야)'을 발족시켰다. 민주당의원 52인과 전일본불교회, 입정교성회, 불소호법회, 창가학회 등 불교단체의 간부들도 참석한 이번 발족식에서 구마가야 회장은 창립취지에 대해 "정치와 종교

가 왜 있어야 하는지 가야할 방향을 솔직하게 물어 인류의 행복과 평화,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임이 되겠다"고 말했다.

종교와 정치관계를 진정으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공감대가 확산돼 발족된 '종교와 정치를 생각하는 모임'은 거대여당으로 화하기 쉬운 연합정권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민민복을 꾀하며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원칙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숙 기자

미주현대불교 바라밀회 NGO 활동

○... 미주현대불교(전집인 김형근)는 9월 17일 뉴욕에서 창간 10주년 뉴욕행사와 UN/NGO 활동을 할 단체인 현대불교바라밀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행사에는 학담(종회의원) 법타(평불협 회장) 설옹(조계종총무원 사회국장) 해동(뉴저지 텍사스 주 휴스턴 소림사주지)스님과 뉴저지 인의법단 이정희 점선사승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가했다. 현대불교바라밀회는 UN/NGO 가입단체를 상대로 앞으로 한국불교를 알리고

북한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케이코교도들과 협의하여 남북문제 해결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중서 달마대사 묘 발견

○... 선종의 개조 달마대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묘가 발견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화엄학연구소가 최근 중국 허난성 낙양 부근의 외국인 미개방지인 웅이산(熊耳山)에서 '보리달마대사 승(菩提達摩大師頌)'이라고 새겨진



해외통신

석탑과 묘탑을 발견했다. 석탑은 높이 3.6m, 묘탑은 높이 15m.

석탑 비문은 '양무제천(梁武帝撰)'이라고 돼있어 달마대사를 중국에 받아들여 세 설법을 펴게 한 양무제(502~549)가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된다. 1,000가량의 비문은 달마대사가 527년 중국에 입국해 무제의 도움으로 포교활동을 했고 536년 12월 5일 낙양 부근 용문석굴(龍門石窟)에서 승했다고 기록

구산선문 참선 기행

10월 : 봉림산문(봉림사지)·성주사·장유암

10월에는 현옥선사(787~868)에 의해 개창된 봉림산문의 중심도량으로 현재는 터만 남아 있는 봉림사지를 찾아 갑니다. 봉림사지에서는 고려 왕실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한때 경남 지방의 선종을 진작시켰던 향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천년 고찰 성주사에서는 대웅전(지방문화재 제134호)과 3층석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가야시대의 장유화상이 토굴을 지고 수도하며 불법을 수로국에 전한 효시가 됐다는 유서 깊은 장유암도 함께 합니다.

- 출발: 10월 9일(토) 밤11시·조계사 앞(무박2일)
- 회비: 4만5천원(조식 증식 포함)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 구산선문 관련지문 부디피아(www.buddho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약양품·대한불교제과인회

대구·광주 사찰연합회 '동서화합' 합동 대법회

6일 무각사... 5천여명 참가

지역갈등 해소와 동서화합의 장을 열기 위해 대구와 광주의 사찰들이 발벗고 나선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와 광주불교사원연합회(회장 천운)는 6일 광주 무각사에서 광주·대구불교사원연합회 합동대법회를 봉행한다.

수덕사 '환경살리기' 치어 40만마리 방생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는 9월 29일 논산 탐정지수지에서 본말사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토종 민물고기 치어 40만마리를 방생했다.

방생용 토종 민물치어는 충남 내

이날 대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하여 천운, 원명스님 등 3백여 사람의 스님, 박상규 국민회의 연등회장, 박철언 자민련 불자회장 등 정계인사와 불자 5천여 명이 참가한다.

법회에 앞서 대구불교사원연합회는 5·18보기를 참배하고 시내일원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인후 전남도청을 방문하게 된다. 이윤호 기자

수면 개발시절에서 부화시킨 물고기로 환경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방생법회가 뜻생명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명살리기 방생이 돼야 한다"는 법장스님의 법문을 들은 불자들은 보시금을 모두 생명나눔운동에 쓰도록 전달해 자연생태계와 인간 생명을 살리는 방생으로 회향했다. 김원우 기자

군법당 향만정사 개원

국군수송사령부 향만운영단 군법당 향만정사 개원법회가 10월 1일 열렸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호성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정권스님을 비롯 3백여명의 군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회, 개원법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향만정사는 법당 29평과 부속건물 20평에 요사채를 두고 매주 월, 금요일 자체법회와 일요일 법사 초청법회를 열어 군장병들의 신행을 다지게 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부산불교교육원 선방개설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에 청소년, 일반인들을 위한 선방이 개설된다.

부산불교교육원은 매주 월, 금요일 이들을 시민들을 위한 선방으로 개방하고 생활참선을 지도하게 된다. 시민선방은 그동안 부산불교교육원에서 꾸준히 진행해 오던 청소년 참선수습, 기초참선수습등을 거쳐간 수강생들의 보다 깊은 내면관조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절 불사 이산 지장정토원

서해안지역 포교 중심 도량

극락전 등 완공 10일 개원 대웅전 수련원 건립 추진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타락가 거센수록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운다. 또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안정과 정신적 지주를 찾게 마련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중생들의 번뇌를 씻어주는 도량을 가꾸는 불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맞아 새로운 불교수행 및 포교, 교육의 중심부 역할을 담당할 도량 지장정토원이 충남 아산시에 건립된다.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영인산 지장정토원(주지 법경)은 1차로 1천5백평부지에 50평의 극락전과 임시요사채, 우물불사,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공하고 10월 오전 9시 30분 석주스님 초청 삼존불상 점안 및 개원법회를 개최한다.

지장정토원은 앞으로 대웅전과 수련원 지장전 산신각 일주문을 2천 9백평 부지에 10개년 계획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2백평 규모의 불교수련원은 지역불자교육과 어린이, 청소년들의 정서교육을 담당하고 불

자들의 수련 및 수행공간이 되도록 하는 교육가람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사찰에 찾아와 몸과 마음으로 쉬 수 있는 쉼터로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도 마련하여 복지도량으로도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산시 지정 보호물인 어금니바위가 있는 지장정토원은 1984년 북한산 용암사 주지 정천스님의 원력으로 불사가 시작됐으며, 99년 7월 도심포교당인 영인정사 성동포교당에 기증되면서 건립불사가 원만하게 이뤄지게 됐다.

88년 법경스님이 성동지역 포교를 위해 창건한 영인정사 성동포교당은 1백회 이상의 고아원 양로원방문, 경로잔치, 지역의 불우이웃돕기와 소년소녀가장 3가족 돕기등을 펼쳐왔으며 지역포교를 위해 어린이법회, 무학여고불교반 법회등을 이끌고 있다.

법경스님은 "앞으로 여법한 도량으로 가꿔 도심과 농촌을 잇고 인연있는 불자들은 더욱 깊은 믿음을 전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인연을 맺게 해주는 전법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아산시 어금니 바위에 있는 지장정토원은 서해안 포교중심도량으로 불사가 진행중이다. 원안은 주지 법경스님.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협장
서울 종로구 평행동 45번지
TEL (02)396-2736 HP: 016-228-2358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 행사기간 : 1999. 9. 8 ~ 11. 22

• 응모기간 : 1999. 11. 30 까지

• 추첨 및 발표 : 1999년 12월 3일자, 현대불교신문기재

• 응모방법 : 행사중 '현상공덕함'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금박인쇄 되어있는 「현상공덕함」을 오셔서 우편봉투에 넣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 경품내용

- 대상 :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매)
- 1등 : 2명 (고승기념메달 8개/세트)
- 2등 : 3명 (고산다기 및 다기함/세트)
- 3등 : 5명 (고산다기/세트)
- 4등 : 10명 (문구암스님 범음, 범패집 각 1집)
- 5등 : 50명 (참선명상방석 각1개)
- 마하몰상 : 200명(법성계걸망 각1개)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함”

기도와 함께 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뉘십니다

• 행사장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02)732-1522, 견지동본사 (02)739-3032

• 문의처 : 서울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02)732-1522, 견지동본사 (02)739-3032

• 부산 : 부산광역시 중구 동대문로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051)865-4383

• 후원처 : 금성통상 (전국대리점 모집)

• Tel: (051)324-3731 • Fax: (051)324-3733

* 1~2개 주문시 동기로 구매자부담, 3개이상 구매시 판매자부담